

달을 쓰는 날들

원예린

돌잡이 때 연필과 공책을 쥐었다. 부모님은 내가 공부를 할 팔자라고 믿었다. 그리고 실제로 초등학생 때까지는 사교육을 받으며 공부를 꽤 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공부에 흥미를 잃었다. 내가 유일하게 성적이 떨어지지 않은 과목은 하나였다. 그것은 국어였다. 문학을 공부할 때면 점수는 더 빛났다. 국어는 나에게 읽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 돌잡이 때 연필과 공책을 잡은 게 정말 팔자로 이어지나 싶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였다. 또래 친구들이 골목에서 술래잡기를 할 때 나는 집 현관 문턱에 앉아 책을 보았다.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면서 책을 정말 바라만 봤다. 어떨 때는 책을 거꾸로 들고 읽었다. 거짓말 같지만 정말이었다. 책장에는 출판사마다 내놓은 동화책 전집이 있었다. 동화책을 다 읽고 시시해졌을 때 나는 화장실에 있는 성인용 유머집을 훑어보았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에 나는 자주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책을 읽었다. 변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변비도 얻었다. 어렵פות이 성인용 유머집이 이해가 됐을 때 아빠가 사온 전자제품 설명서를 훑어져라 보았다. 지금 떠올리면 손바닥만 한 설명서일 뿐이었다. 엄마는 이런 잡다한 것을 읽는 어린 내가 걱정이 되어 종종 책 읽는 나를 꾸짖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책상 아래에 들어가 몰래 책을 읽었다. 엄마의 걱정 속에서 아빠는 어떤 것도 좋다, 읽는 것은 옳다, 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읽을거리가 다 떨어지자 나는 스스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글은 그렇게 내게 다가왔다.

원고지 배우는 법을 깨달은 것은 10살. 글을 잘 쓴다며 선생님께 칭찬 받은 것은 11살. 교내·외 백일장에 나가 첫 상을 타 온 것은 12살. 그리고 13살, 나와 띠 동갑인 막내 동생이 태어났다. 동생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기분을 잊을 수 없었다. 붉은 얼굴에 인상 찡그리듯 접히는 자잘한 주름들, 실제로 본 신생아의 얼굴은 울긋불긋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였다. 언뜻 보면 붉은 달 같기도 했다. 막 태어난 얼굴은 보름달처럼 빛났다. 나는 집에 돌아와 동생을 떠올리며 글을 썼다. 그리고 나의 13살 사춘기, 막내 동생이 태어나면서 나는 사춘기 대신 어린 동생을 돌보는 어린 누나가 된다고 결심했다.

엄마의 비명 소리에 눈을 떴다. 출산 후 엄마는 예민하고, 조금 아프고, 많이 안 좋았다. 빨래를 널다가도 끄끙 앓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면 작게 열린 문틈 사이로 쪼그라드는 발가락이 보였다. 꿈지락, 꿈지락. 큰 발바닥과 아주 작은 발바닥 두 쌍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주름 접힌 빨래를 탁탁 털어 널며 시계를 확인했다.

이제 곧 둘째 동생이 와서 청소기를 돌릴 것이고, 한 시간 뒤에 아빠가 와 저녁 준비를 할 것이다. 나는 창밖으로 하루가 또 지나가는 것을 봤다. 밤에는 달이 거리를 비추고 있다. 달을 무심코 본다. 오늘은 어둠이 달을 삼킨 것 같다. 학원을 가야했다. 운동화를 꺼어 신으며 묵직한 가방을 고쳐 들었다.

교복을 입었다. 교복을 입은 나는 어색했다. 막내 동생은 이제 엄마의 등에 업힐 수 있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엄마랑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나는 관심을 필요로 했다. 엄마랑 다투고 슬플 때면 항상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공책에 생각나는 것을 썼다. 어떤 날은 일기이기도 했고, 어떤 날은 콩트 같기도 했다. 학년이 바뀌면서 나는 교내 도서관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전에는 주로 그림이 가득한 만화를 봤다면 이제는 줄글로 된 소설들을 찾아 읽었다. 그때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에세이를 보고 집에 가 비슷하게 썼다. 우연히 그 에세이를 본 국어선생님은 나에게 글을 쓰지 않겠냐고 권유했다. 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내 주변 가득 모든 것들은 글이었다. 나는 여태 썼던 글들을 선생님께 보여주었다. 그렇게 다시 글을 쓰게 되었고 새얼 백일장에 나갔다. 백일장에서 수상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글에는 그토록 미워하던 막내 동생이 등장했다. 내가 쓴 글을 읽으며 기분이 묘해졌다.

중학교 3학년, 등교를 하지 않았다. 학교 대신에 도서관에 갔다. 원고지와 연필, 커터칼과 지우개. 그리고 매일 해 오던 것처럼 글을 썼다. 교내 외에서 꾸준히 글을 쓰던 내게 선생님이 팜플렛 하나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예술 고등학교 안내서였다.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글을 배워보는 게 어떨겠냐고 내게 권유했다. 심장이 뛰었다. 처음 글을 쓰며 칭찬 받았던 때랑은 다른 떨림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질 못했다. 내가 고등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막내 동생이 유치원을 가기 때문에, 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한참 동안 글을 쓰지 않았지만 손은 알고 있었다. 글을 쓰지 못해도, 글자는 쓸 줄 알았다. 고민하던 내게 선생님은 어떨 때 내가 가장 행복하냐고 물었다.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을지 생각했다.

허리가 아플 때면 커피를 사서 도서관 밖 의자에 앉았다. 오후 6시가 뜨는 핸드폰 시계에 학교에 있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연히 휴대폰을 꺼져있었다.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 부모님께 해 보고 싶다고, 지원은 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했다. 이기적이라는 말도 들었다. 그래서 학교에 안 나가기 시작했다. 학교를 가는 대신 도서관을 다니며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글을 썼다. 이런 내 모습을 두 달간 지켜보던 아빠는 지원을 해 보라고 했다. 대신 떨어져도 실망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 다음날 내가 문밖을 나설 때면 꼭 작은 초콜릿 하나가 신발 옆에 놓여 있었다. 부모님만의 응원이었다.

낮선 곳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은 어려웠다. 무엇을 봐야할지,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다. 그래도 내 마음이 가는대로 했다. 하고 싶은 것을 공부하며 행복했지만 그래도 내 나이 열여섯이었다. 아직은 친구들이 마냥 좋을 나이였다. 친구들이 그리울 때면 더 이 악 물고 연필을 깎아서 글을 썼다. 36번 버스를 타고 40분을 매일 달려 미추홀도서관에 갔다. 처음이었다. 스스로 결심을 한 것도, 행동을 한 것도. 그래서 내가 조금 성장한 것 같아 스스로가 뿌듯하기도 했다. 나는 주로 창가에서 책을 읽었다.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나 달이 뜨기 시작하면 짐을 챙겨 나왔다. 항상 달이 뜨려면 멀게만 느껴졌다. 집에 가려면 큰 육교를 건너 맞은편에서 버스를 타야했다. 그때마다 한 걸음 다가온 커다란 달을 보며 나는 미래를 생각했다. 볼 것이다. 그리고 항상 행복할 거다. 사실 이틀에 한 번 문을 잠그고 매일 울었다. 힘들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그래도 입에서 맴도는 말을 삼켰다. 그렇게 나는 안양예고 문예창작과에 입학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같은 과를 선택했다. 나는 여전히 책을 읽고, 보고, 글을 썼다. 가을이 왔다. 도서관을 다녀오며 잊어버렸던 달을 다시 바라보았다. 둥글고, 붉은 달. '슈퍼 문'이라고 100년인지, 1000년인지 어쨌든 오랜 시간을 두고 한 번 뜬다고 한 큰 달이 보였다. 달을 볼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환한 빛도 좋고, 내 주먹만 한 크기도 좋지만 붉은 달은 아주 오랜 시간 보았다. 육교 위에서면 저절로 하늘을 봤다. 나는 오랜만에 시집을 읽었다. 글자가 휘날리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으며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다. 시집 위로 삐죽 삐죽 튀어나온 포스트잇 사이로 빨간 포스트잇 하나가 자리 잡았다. 조심스러운 마음은 지우지 못하지만, 마음 깊숙이 꿈고 있던 공간이 지워지고 있었다. 초심이 된 나는 도서관을 다니던 때를 생각했다.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묵직한 말을 삼키며 지낸 날을 생각했다. 실망도 후회도 없었다. 커튼을 친 방 안에서 달빛은 내 정수리를 비추지 않지만 환한 스탠드 불빛이 내 정수리를 빛나게 했다. 사각, 사각. 연필심이 종이를 긁어내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흘러가길 바랐다. 내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막내의 이마를 살펴본다. 고요하다. 나는 오늘도 나를 썼다. 글은 여전히 내 곁에 있었다.